

전남도 40~50대 일자리 마련 203억 투입

405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재취업 교육·고용기업 지원 장려금 등 12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실직·조기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도내 40~50대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 장려금, 재취업 교육, 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가 18일 "정부 고용대책에 발맞춰 조기 퇴직·실직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0~50대 가장들을 위해 '전남 405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4050세대는 전남도 인구의 약 32%, 생산가능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

는 등 경제인구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다. '4050 희망일자리 프로젝트'는 조기 퇴직한 4050세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력·경험·역량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등을 제공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4724명에게 203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3529명 대상 174억원, 직업훈련 교육은 1195명 대상 21억원 등을 구분된다. 지난해 대비 사업량 6%, 사업비 11%가 늘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을 신설해 40~50대가 취업한 기업에 고용유지금,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이 취업경력이 있는 신중년을 고용하면 인건

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있다.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본인 기술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353명에게 6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다. 또 전남 도내 기업 중 2년 이상 정상가동하고 지난해 대비 고용률이 5%이상 증가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고용 환경개선금 2000만원과 지방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군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도 공모에 선정되면 취업지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4050세대의 재취업,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교육

에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기업의 4050세대 채용 인식을 개선하는 '4050 인성2막 희망 리더십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8억원을 들여 신중년일자리센터 2개소도 설치된다. 센터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시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택후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은퇴자 증가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강화해 취업을 바라는 중장년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재취업해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기원 석류 신품종 2종 시범보급

신맛 짙고 낙과 적어 2~3년후 농가 전면 보급

고소득 작목으로 꼽히는 석류 신품종이 농가에 시범 보급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8일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석류 신품종을 시범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품종 석류는 2~3년 후 농가에 그루당 1만~1만 5000원 가격으로 전면 보급될 예정이다.

고흥·해남지역 농가 5곳에 보급되는 신품종은 단미홍과 신미홍이다. 농업기술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석류 품종 국산화 연구를 진행, 2017년에 단미홍을, 2019년 신미홍을 개발했다. 단미홍은 국산 1호 단석류다. 과중은 약 260g, 당도는 14브릭스(Brix)에 이른다. 수박은 대개 11~12브릭스인데 산도가 없어 더 달게 느껴지고 석류는 산도가 있어 덜 달게 느껴진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해야 낙과를 줄이고 당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품종인 신미홍은 노지에서 과중은 250g 수준이며, 비바람에 따른 낙과가 적어 결실이 우수한 편이다.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운섭 팀장은 "단미홍은 당도가 높고 신맛을 획기적으



2017년에 개발한 단미홍.

로 떨어 뜨려 석류 대중화에 앞장서고, 신미홍은 다수확 품종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류는 1000㎡(약 300평) 재배면적·2018년 기준, 생산성은 1.2t으로 종자대 등 경영비를 제외하고도 76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파악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마늘이 154만원, 단감 190만원, 유자 250만원, 배 410만원, 복숭아 430만원 수준이다.

전남의 석류 산업은 84만㎡(약 2만 5000평) 면적에서 230여 농가가 재배 중이다. 고흥군이 전국의 64%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꼽힌다. 현재 대부분 재래종(잡종)이 혼합 재배돼 품질 균일화와 고품질 브랜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내달 2일까지 신임 원장 후보자 공모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다음달 2일까지 제3대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원장(계약직 상임임원)은 진흥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할 역할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 대상은 환경산업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획경영 및 마케팅 능력과 진흥원 기반 구축 및 자립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지도력과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전문인으로 관련 기관 등과 원만한 관계유지 및 조정 수행능력도 필요하다.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누리집(www.jeipi.or.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직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2일까지다. 이후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을 거쳐 상위점자 2명을 이사진(전남지사)에게 추천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그동안 환경산업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실험 등을 추진해 지역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혁신리더 영광의 얼굴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은 경제·관광분야 등에서 전남의 잠재력을 널리 알릴 지역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한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왼쪽부터 이광선 엠엔유투브 대표, 김혜숙 새수궁가든 대표, 김지사, 이신영 농업회사법인 자작 대표, 주재용 (주)하늘빛수목정원 대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성과...올 사업자 21일까지 모집

지자체가 귀농어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실시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92명이 전남에 전입하거나 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할 마을공동체, 농가 등 운영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시민들에게 전남에 먼저 살며 귀농산어촌을 이해하고 농지·주택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주며, 마을·농가 주민이 귀농산어촌인 유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 3개 객실 이상의 장기 숙박 시설과 농산어촌 현장 체험, 주민 교류, 귀농산어촌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농산어촌 체험과 귀농산어촌 기초정보 습득 등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반형'과 가공기술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기타 전문기술을 전수해 창·취업반을 운영하는 '특화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소재지 시·군을 직접 방문한 경우만 가능하다. 운영자는 특색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능력, 마을 주민

의 자발적 참여 정도, 숙박시설 실태에 대해 서류심사, 발표심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2월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운영자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일반형' 운영자는 최대 3000만원, '특화형' 운영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 신청이 가능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귀농산어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귀농산어촌 유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리모델링 6월까지 휴관

여수시 돌산읍에 자리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시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6월 30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이번 전시환경 개선공사는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화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동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공사추진으로 관람객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98년에 개관한 과학관은 2016년

부터 3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실내·외 시설을 최신트렌드에 걸맞는 독창적인 요소로 개보수한 바 있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과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과학의 꿈을 꾸는 미래 인재들이 양성될 교육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하세요

전남도 28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는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마늘 경작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을 정부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순회 설명회와 시·군 담당과장, 농협중앙회 농정지원

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입을 확대 대책 회의를 갖고 가입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은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신청자격은 1000㎡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한 농업경영체이며,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